

노동자 건강 앓아먹는 야간노동, 이대로 괜찮을까

유청희 집행위원장

한국 노동자들, 이렇게 일해도 될까? 정말 한 달에 20일 이상을 야간에만 일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걸까? 2024년 초, 노동시간센터에서 한 해 동안 주요하게 다룰 의제 토론을 하다가, 지금 다루어야 할 주제로 ‘야간 노동’을 정했다. 이토록 노동자들이 야간에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죽기까지 하는데도 한국에는 야간노동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밤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논의 결과 야간노동을 주제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연구 현장은 바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 현장. 쿠팡, 다이소 같은 민간기업의 물류센터와 우정사업본부와 그 자회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도 했다. 쿠팡은 주문부터 분류 후 배송까지 한 번에 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자랑한다. 다이소는 제품을 쌓아둘 창고 없이 운영되는 전국의 매장에 보낼 제품들을 준비한다.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두 곳 중 한 곳은 일반 우편물과 소포가, 자회사의 물류센터에서는 택배가 한데 모였다가 분류되어 각 지역으로 배송된다. 이런 업무를 야간고정 노동자들은 저녁 9시 또는 11시부터 시작한다. 각 물류센터마다 여러 개의 업무 시간대가 있는데,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은 이때 시작해 보통 아침 7시경에 업무를 마쳤다.

보통 현장 노동자들을 면접하는 시간은 업무가 끝난 이후인 오후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야간고정 노동자들을 만나는 때는 업무 시간 전인 오후 4시, 저녁 7시경, 또는 업무가 끝나는 아침 7시경이었다. 두 팀을 만날 때는 다른 연구를 할 때처럼 면접 참여자들과 차를 함께 마셨는데, 업무가 끝난 후 만난 두 곳의 노동자들과는 아침 식사를 했다. 아침 시간 면접이 끝난 후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어떤 노동자는 집에 가서 잔다고 답했

고, 또 다른 노동자는 또 다른 일터로 출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의 삶의 경로를 바꾸게 만들었다. 어떤 노동자는 여행사에서 40대까지 일을 했지만 여행업이 쇠락하면서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물류센터 현장 중 한 곳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코로나19 시기 사업이 어려워지자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찾았다.



▲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 연구보고서 (2024.12)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물류센터 두 군데에 다녀왔다. 택배 물품이 분류되어 지역에 맞게 미끄럼틀 타듯 내려오면 노동자가 카트에 차곡차곡 쌓는다. 성인 남성 키 높이만큼 쌓인 카트를 차량 앞에 가져다주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카트를 움직이고 있었고 지게차도 썩썩 다니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죽어라 뛰어” 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간노동임을 고려해 주간보다 노동강도를 낮출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노동강도가 주간보다 완화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건강 지표가 나쁘게 나왔지만, 면접 중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지금 물류센터 업무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는 ‘투잡’을 물었을 때 꽤 많은 수가(27%) 그렇다고 답했는데, 투잡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면 대부분이 있다고 답했을 것 같았다. 면접에서 만난 노동자들도 대부분 투잡 경험이 있거나 여전히 계속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노동자는 과거 야간노동을 하면서 자는 시간 외에 일만 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했다. 그때 쓰러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노동자들 대부분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잠을 충분히 자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생활을 멈출 수는 없었다.

야간노동이 당연한 사회에 던지는 물음

질 좋은 일자리는 없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러니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야간수당이 나오는 물류센터 야간 노동이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당장 생계 문제가 달린 노동자들에게는 갈 곳이 많지 않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쿠팡 같은 거대 자본이 질 나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낸 것이다. 노동자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야간노동에 ‘내몰린’ 것이다. 다시, 야간노동 규제가 없는 한국에서, 우리는 언제쯤 자신 있게 야간노동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게 될까? 